

코로나 극복 이색지대

“혼산족이라 좋은 해남 달마고도”

해남군 4일부터 워킹데이 365일 걷기프로그램 운영

“혼산족이라 좋다. 산린이라 더 즐겁다.”

해남군은 4일부터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혼산족을 위한 달마고도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산 산행을 하는 ‘혼산족’과 초보 등산객 ‘산린이’(산+어린이)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여행자를 위한 걷기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단체관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해남지역 주요 산과 달마고도 일원의 등산, 트레킹 등 비대면 야외 운동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일부터 8월29일까지 매주 토요일 미항사 일주문 앞에 서진행되면 참가자들은 트레킹가이드와 함께 출발한다.

도솔암에서 석양 보기, 송호해변 모래 조각 전시관람 등 해남만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코스도 마련됐다.

해남의 대표 농·특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달마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항사 사



해남군이 4일부터 ‘혼산족을 위한 달마고도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왕문 앞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을 위해 차수별로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명령관 해남군수는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를 통해 즐겁고 건강한 걷기문화가 정착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힐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바다 위 15m 상공 ‘아찔한 스릴’

목포 대반동 스카이워크 개방 목포대교·고하도 최고 풍광도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섰다.

목포시는 대반동 유달유원지 앞바다에 14억원을 들여 조성한 스카이워크 포토존을 1일 개방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길이 54m, 높이 15m로 바닥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한 투명 강화

유리와 스틸 발판으로 제작됐다. 상공 15m에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스릴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장객 안정감을 위해 난간 높이는 140cm로 기준 높이보다 20cm 높게 설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목포대교와 서해의 낙조, 목포해상케이블카 모습은 가히 최고의 풍광이라고 자부한다”면서 “색다른 감동과 낭만

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반동에 스카이워크까지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목포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카이워크는 하절기(3~10월) 오전 9시~오후 9시, 동절기(11~2월)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목포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부상하고 있다.

달콤한 알갱이 톡톡... ‘웰빙 간식’ 해남 초당옥수수 본격 수확

50여 농가 10억원 소득 기대

웰빙 간식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생으로 먹는 옥수수, 해남 초당옥수수가 본격 수확되고 있다.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超糖, super sweet corn)으로 불리는 초당옥수수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다.

100g당 칼로리가 96kcal로 찹옥수수 절반 정도

에 불과하고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자레인지에 3~4분 또는 찜기에 7~8분 정도 익혀 먹거나 적당히 구워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 달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한 해남 초당옥수수는 관내 50여 농가, 50여ha 면적에서 재배돼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찹옥수수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고 재배

기간이 80일 정도로 짧아 농가의 틈새 작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남산 초당옥수수는 엄격한 재배관리와 선별로 크기 17~18cm, 17~20브릭스 이상 당도의 최상품만을 출하하고 있어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수확된 옥수수는 유통업체를 통한 온라인 판매와 해남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http://www.hnmiso.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비파’ 7월 해양치유식품 선정...“면역력 향상”

완도군이 7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비파’(사진)를 선정했다.



비파는 방향성 식물이며 장미과에 속한 상록활엽 교목으로 열매 형태가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 비파나무라고 한다.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 자란 비파는 3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수확한다. 노지에서 자란 비파는 현재 한창 막바지 수확 중이다.

완도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비파 재배 최적지다. 완도 비파는 일조량도 풍부하고 해풍의 영향을 받아 당도가 뛰어나다.

완도군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파를 육성하기 시작해 현재 비파 재배 면적이 전국 최대 규모인 80ha로 150농가가 연간 50여t(열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남 대비 약 80%, 전국 대비 약 65%를 차지하는 양이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4개로 확대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등 추가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목포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8개 항목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한 사망, 침

몰사고로 인한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은열질환 진단금 지원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목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전복(주), 친환경 수산물 가공·유통 관리 인증 획득

완도군은 출자기관인 완도전복(주)이 친환경 수산물 가공·유통 관리 인증(ASC-CoC)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ASC-CoC(Chain of Custody)는 인증 제품의 라벨을 통해 수산물의 정보·이력 등 추적성을 제공하는 인증이다.

완도전복(주)은 구매·가공·유통의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인증서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었다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완도군은 ASC-CoC 인증 획득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제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유통 경로를 확보해 내년 4월 열리는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총 26개 전복 양식어장에서 ASC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ASC 인증을 희망하는 전복어가에 대해 교육 중이며, 해조류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